



사진 : 김병훈 가브리엘 (엄궁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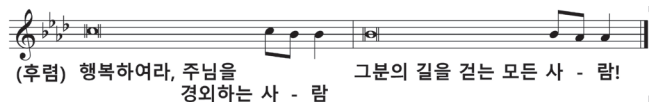
**입 당 송**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 1 독 서** 집회서 3,2-6.12-14

**화 답 송** 시편 128(127),1-2.3.4-5 (◎ 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1.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2.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했순 같구나. ◎

3.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 독 서** 콜로새서 3,12-21

**복 음 환 호 송** 콜로 3,15.16

◎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루카 2,41-52

**영 성 체 송**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리 교사들)**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성가정, 자신을 버리는 만큼...

‘성가정’은 ‘하느님 중심의’, ‘하느님과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많은 신부님이 귀땀해 주십니다. 성가정에 대한 정답이지만, 뭔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가정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신앙 때문에 가족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교회 봉사과 신심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모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행복하고 화목한 성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 간 다툼과 불화를 겪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는 성가정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소위 전문가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족 간 이해와 배려를 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분명 더 행복한,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

도, 배려도 결국 자신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베푸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자신’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상대를 위한다고 하기에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배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탓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이해와 배려가 아닌 ‘양보’와 ‘포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배려가 자기 중심이라면, 양보와 포기는 자기 중심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양보와 포기라는 말에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손사래 치기도 합니다. 양보와 포기는 손해와 희생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얼마나 참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더는 그럴 수 없다고도 합니다. 손해 보고 희생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는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지만, 손해나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엇도 비할 수 없

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건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겠지요. 사랑 앞에서는 손해도, 희생도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우리 가족이 사랑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대상인가요?

앞서 성가정은 하느님 중심, 하느님과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중심이라면, 먼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느님이건, 가족이건 다른 누군가가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꼭 양보, 포기해야 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의 뜻에 맞추려고 한다면 성가정은 그야말로 닿을 수 없는 이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자신을 버리고’라는 말씀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권 동 성**  
폰시아노 신부  
흰돌공동체 주임



캘리그라피.  
김태자 베르베투아 (양산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12.27(월)~28(화)  
권동성 신부(흰돌공동체 주임)  
12.29(수)~2022.1.1(토)  
김덕현 신부(금정성당 부주임)

**다정다감다섯시**  
월~금 17:00~18:00  
진행: 김현지 리나  
12.28(화) 연말특집 <다정한 아트살롱, 영화음악과 명화가 만났을 때>  
출연: 음악칼럼니스트 오성은, 미술칼럼니스트 정연은 율리아(성가정)

**신부들의 수다**  
1.1(토) 13:00~14:00  
진행: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새해특집 <들어는 드릴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는(?) 드립니다.

## 고귀한 '혼인성사'

혼인은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거룩한 제도로, (창세 1,28 참조) 단순히 인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마태 22,1-14; 25,1-13 참조) 그러기에 새 가정의 출발점에 서는 신자 예비부부들이 사회혼인에 머물지 않고 '혼인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혼인성사는 부부의 성화와 구원을 위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결혼 당사자는 혼인성사를 통해 인간적 사랑을 성화시키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부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온전한 부부사랑과 견고한 부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 및 자녀출산으로 인격적 성숙과 신앙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성덕

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혼인성사는 냉담 여부와 상관없이 세례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해당되는 성사입니다. 자녀가 비록 지금은 냉담 중이지만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훗날 하느님을 다시 찾을 때 어차피 혼인성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회혼인을 할 무렵에 혼인성사를 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합니다. 사실상 냉담 중인 자녀가 혼인성사를 계기로 가톨릭 신앙을 되새기며 성당을 찾아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므로, 부모와 대부모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이끌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혼인성사를 겸한 '성당 결혼식'이 대단히 친숙하고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소비주의적 결혼문화에 휘둘리지 않은 채 성스럽게 진행되는 '성당 결혼식'이

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결혼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구의 경우, 전국 유일의 혼인 특화성당인 '부산가정성당'을 통해 신랑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순간을 가톨릭교회가 정성을 다해 동행함으로써, 새로운 가정공동체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가정성당에서의 결혼식을 계기로 냉담 중이거나 비신자인 신랑신부와 그 가족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연간 수만 명에 이르는 비신자 하객들이 아름다운 성당과 고귀한 혼인성사를 자발적으로 접하면서 효과적인 간접선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송 현 로마노 신부

가정사목국장 겸 부산가정성당 주임



###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찬미받으소서』 10항~12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 생태론을 기쁘고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하였고, 또한 기쁨, 관대한 헌신, 열린 마음을 지녔기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살았던 신비주의자이며 순례자입니다. 자연 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가 어떠한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 그에게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하나 되는

-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야 한다는 소명을 느낀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청빈과 검소는 피상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곧 실재를 단지 이용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을 단념하는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성경에 충실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선함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는 놀라운 책으로 자연을 받아들일도록 권유합니다.

『찬미받으소서』 10항~12항 영상 보기

낭독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최재석 사도요한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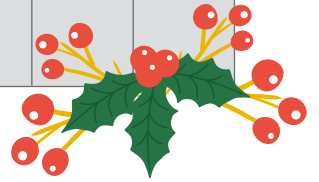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기



1.		2.				3.					4.
1.						3.					4.
					2.						
				5.						7.	
						7.		6.			
	5.							8.		9.	
6.											

# 12월 가로세로퀴즈

정답은 6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없습니다.)



## 가로 문제

- 우리나라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고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부터 한 주간을 ○○○○○○으로 지낸다.
- 복음을 선포하러 오시는 주님께 환호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 독서가 끝나면 일어서서 '알렐루야'와 '복음 전 성구'를 노래한다.
- 주님의 탄생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는 축제의 노래인 ○○○○은 맞지 않기에 대림 시기 동안 부르지 않는다. 성탄 밤미사 때부터 다시 부르는 이 미사곡은?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을 자제하는 것.
- 아시시의 성 ○○○○○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를 생생하게 전하고자 1223년 성탄, 그레치오 성당에서 베들레헴의 외양간을 본뜬 구유를 꾸몄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오늘날 많은 성당에서 구유를 설치하고 있다.
- 세인트 니콜라스(Saint Nicholas, 성 니콜라오)에서 유래한 말. 가난한 사람과 어린이를 잘 보살폈던 성 니콜라오가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이야기가 전해져 이것의 모델이 되었다.

- 박해 받는 교회가 자유를 얻은 것은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선포된 ○○○ 칙령 때부터이다. 이에 따라 박해시대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이 모두 반환되었고, 그리스도 교인을 속박하던 모든 법률이 폐지되었다
-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아 금실, 은실, 별 등으로 장식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의 빛(별)이 되심을 상징한다. 크리스마스 ○○.
-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2022년 부산교구 사목지침은 '○○와 말씀의 해'이다.

## 세로 문제

- 가정은 작은 교회로써,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과 신앙이 전해져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요람이 된다. 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자들의 가정을 ○○○○라고 이름 지었다.
- 성탄을 8일동안 경축하는 '○○○○ 축제'는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 성 스테파노(26일),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27일), 죄없는 아기 순교자들(28일), 성가정 축일(8일 내의 주일) 등을 지낸다.
- 푸른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화환이며 보라

- 색 계열의 4개의 초로 장식한다. 4개의 초는 구세주를 기다리던 구약의 4천 년을 상징한다. 대림 4주 동안 초를 하나씩 차례로 켜으로써 구세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알린다.
- 미사의 시작예식을 마무리 짓는 사제의 짧은 기도. 미사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 청원을 모아서 사제가 대표로 바친다. 사제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신자들은 잠깐 동안 각자 기도의 지향을 묵상하고, 사제의 기도가 끝나면 이 기도에 마음을 결합시키고 동의하는 뜻으로 "아멘"하고 응답한다.
- 주님 성탄 대축일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으로 Christ와 Mass의 합성어이다. 프랑스에서는 '노엘'(Noel), 독일과 스위스 등지에서는 '거룩한 밤'(Weihnacht)라고 불린다.
- 프랑스어로 '우리들의 부인'이라는 말로 '성모 마리아'를 의미한다. 프랑스 고딕 건축물의 대표적인 파리의 ○○○○대성당이 유명하다.
- 한국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부활과 성탄 전, 적어도 두 번 받도록 하고 있다.(1년에 1번은 의무)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교리 시험(참고)이 따르는데 "힘써 노력하여 공로를 갖춘 다음에 받는 성사"라는 뜻으로 이 고해성사를 ○○○○라고 부른다.

# 2022년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1월 7일(금) 14:00  
**장소** 주교좌 남천성당  
**주제** 교구장 손삼석 주교

## 서품식을 위한 9일기도 12.29(수)~1.6(목)

사제들을 위한 기도(구.가톨릭기도서 P.91, 개정판.가톨릭기도서 P.101) 후 주모경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코로나19 관계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 가능합니다. (참석 대상자도  
백신 접종 완료 시에만 입장 가능)

유튜브(가톨릭라이프부산,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및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니, 방송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신앙생활의 공백이 느껴집니다. 성당에 가서도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하고, 성가를 부르기도, '아멘'  
하고 큰소리로 응답하기도 꺼려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 자격** 교구 신자 누구나
- 부문** 사진,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은 촬영한 사진을 제출)
- 접수기간** 21.12.26(일)~22.2.27(일)
- 접수방법** ①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  
② 이메일 jubo@catb.kr
- 시상** 부문별 1등 - 30만원  
입선작 - 주보 게재 시 원고료
- 발표** 2022년 4월 17일(일)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출품수** 5점 이내  
 (출품 시 -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

- 주제**  
 (아래 주제에 맞게 목상할 수 있는 작품)
1. 성월과 축일, 기념일, 각 주일 복음
  2.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자연과 계절의 풍경
  3. 본당, 가정 등 공동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
  4. 신자들의 전례, 성사 생활 모습

※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홍보국 업무에 활용됩니다.

'성체와 말씀의 해'를 맞이하여 '말씀과 함께'의 실천 사항  
 <한 주간의 성경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를 위한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 한 해  
 동안 성경구절 따라쓰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장 주교님의  
 축복장과 선물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루카 2,51)

[나만의 성구]

## 하반기 한국 천주교 성지 순례 완주자 축복장 수여식



리 신호철 주교가 축복장을 수여했다.

신호철 주교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성지 순례는 사라지는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건너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숭고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한국 천주교 성지 167곳을 완주한 신자 31명에게 지난 12월 17일(금)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총대

##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11월 28일(일)  
주임 : 김대성 신부, 회장 : 이영학 바오로



12월 19일(일)  
주임 : 조성제 신부, 회장 : 조영태 시몬

## 제18회 부산가톨릭문학상 및 신인상 시상식



이번 시상식에서는 작품성과 함께 가톨릭 문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성실한 신자들에게 본상과 우수상이,

지난 12월 17일(금) 가톨릭센터 1층 소극장에서 제18회 부산가톨릭 문학상 및 신인상 시상식이 있었다.

『가톨릭문학』을 통해 이번에 등단한 작가들에게 신인상이 수여됐다.

부산가톨릭문인협회 주관  
(지도 : 윤기성 신부, 회장 : 정효모 베드로)

**수상자 명단** [문학상] 본상 : 김태수 클레멘스, 최옥자 마리아, 우수상 : 박성미 아가다  
[신인상] 최우수상 : 류영근 바오로, 우수상 : 임지숙 레지나, 김철 라파엘

## 12월 가로세로퀴즈 정답

- [가로]** 1. 가정 성화 주간 2. 복음 환호송  
3. 대영광송 4. 크기 5. 프란치스코  
6. 산타클로스 7. 밀라노 8. 트리 9. 성체
- [세로]** 1. 가정교회 2. 성탄 팔일  
3. 대림환 4. 본기도 5. 크리스마스  
6. 노트르담 7. 판공성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13일~12월 19일]

소계 : 308,175원

명지셋별Pr. 10,000 이두용, 성민경 50,000 예금이자 88,175  
성기미 20,000 정태연 30,000 정해섭 10,000 김순옥 100,000

※ 지난 모금 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금 누계 : 931,665,727원

사용 누계 : 701,667,700원

잔액 : 229,998,027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계좌>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농협 301-0267-8167-11**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b>서울공예사</b>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 631-5006, 631-5007 황인환 (가롤로) · 김경자 (모니카)	<b>조은 모바일 크레인</b> 건설현장의 꽃 <b>이동식 타워크레인 (일대/월대)</b> 장비임대 및 현장답사(상담환영) <b>010-3831-2403</b> 심 현 진 (프란치스코)	<b>성모치과</b>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원장. 송 치 원 (라우렌시오) <b>633-8228, 634-8228</b>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b>인산죽염 부산지사(동래)</b> 대표. 김기룡(야고버) 죽염, 유황오리진액, 후두액, 친환경 <b>557-5553</b> 동래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	<b>성신익스프레스</b> (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b>242-4222, 1522-4324</b> <b>www.ss0924.com</b>
<b>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b>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검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룡, 이정현, 장형하, 정재원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엽 <b>554-1088 동래시외버스터미널 옆</b>	<b>세인요양병원</b> 노인성질환/재활/암요양 병원장. 오 서 영(마리아) <b>상담문의 501-7500</b> 부산 동래구 여고로 5 (사직동)	<b>SNU서울비뇨의학과</b> 24시간 요로결석 치료 / 전립선, 요실금 서면 롯데백화점 정문 옆 (도보1분) <b>714-1725</b> 서울대 출신 원장. 박정민 (가브리엘)	<b>가인방문요양센터</b> 장기요양 이용 상담 및 신청 대행 국비지원(100-85%)으로 자택 돌봄 교우 요양보호사 모집 및 대기 중 민 병 덕(사도요한) <b>010-7448-7858</b>	<b>(주)가나안보청기</b> 서면점, 남포점, 해운대점, 동래점 원산지 : 독일 * 교우특별우대* 전세계 모든 브랜드 A/S가능 김도현 (모세) <b>010-7674-2828</b>

**교 구**

**2023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

· 1.15(토)~16(일) · 감물생태학습관  
대상 : 등록된 지원자만  
문의 : 629-8760~2(성소국)

**본 당**

**성바로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자격 : PC(한글, 엑셀)사용 가능자, 회계가능자  
문의 : (052)233-6501, 6502

**괴정성당 성가대 반주자 구함**

서류 :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문의 : 207-3977(사무실)  
010-9289-6225(전례분과위원장)

**기관·제 단체·위원회**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 기도회  
· 12.29(수) 13:00~15:00  
-금요 밤미사  
· 12.31(금) 20:30~22:30  
-젊은이 기도회  
부산 : 매월 2·4주(월) 19:30 전포성당  
울산 : 매월 1·3주(수) 20:00 대리구 별관

**평신도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방문교리(가정) :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교리가 힘든  
신부 / 파견교리(본당) :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  
문의 : 462-0334(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가톨릭간병인회 간병사 모집**

대상 : 개인간병 경력자(65세 미만), 완화도우미 수  
료자(60세 미만) /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 근무  
문의 : 933-7042, 010-3572-7045

**교육·모집·기타**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 청소년, 성인 (비신자 포함)  
내용 :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 홍영미 수녀(심리학박사,가톨릭상담사1급)  
상담 : 010-4539-3101(수~토 10:00~17:00)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직원 구함**

담당 업무 : 주방 조리원  
모집 인원 : 2명(50대 이하)  
접수 방법 : 이메일(osbacc@hanmail.net)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마감 : 12.29(수) / 문의 : 753-1135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동영상 녹화 강의**

· 1월 개강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죄와 구원에 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임숙희 박사)  
-육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유성모 신부)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 영성적 접근(김정택 신부)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권오면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 잠언~집회서(주원준 박사)  
문의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시1차 모집 : 12.30(목)~1.12(수)  
문의 : (054)851-3021(안동교구 운영 전문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인원 : 정시 249명 + 수시이월인원  
[가교] 유스티노자유대학(전면 원격수업 진행)  
- 복지서비스학과/상담심리학과/경찰행정학과/  
부동산경영학과 : 학생부교과 선발(고교 졸업/검  
정고시 출신, 수능 미반영)  
[나교, 다교] 단과대학 통합선발(희망학과 우선선택)  
다양한 장학금·학생복지혜택  
입학상담 : (053)850-2580

**들꽃마을 부산 영성강의 및 미사 취소**

※ 12.27(월) 미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054)955-4133~4

**몸은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효소단식  
성경통독피정**

· 1.6(목)~9(일) / 1.20(목)~23(일)  
· 청도성모솔숲마을 / 지도신부 : 문봉한 신부  
3박4일 참가비 : 15만원  
문의 : (054)373-3955, 010-5878-9922

**성바로말수도회 성소자 대피정**

· 1.7(금) 15:00~9(일) 15:00 / 피정비 : 3만원  
· 성바로말수도회 여주사도의모호집  
대상 : 수도성소에 관심있는 33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 010-2507-1610(김베로니카 수녀)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대상 :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기간 : 2022.3월~12월 / 문의 : (02)828-3600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모집**

모집학과 :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원서접수 : 12.30(목)~1.3(일)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입사 가능  
문의 : (043)270-0100~0102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 **수집내용** :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
- **수집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문 의** : 519-0471(부산교회사연구소)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2(일) 09:30	서울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12.30(목) ~ 2022.1.3(월)
- 모집학과 :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 문의사항 : 입학처(510-0702~8, 0804~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psi.cup.ac.kr)참조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메리놀병원**  
전국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심사 '우수'

**메리놀병원TV 소아청소년과 박상인 과장**  
"배가 자주 오래 아픈 아이, 이것만 기억하자!" 유튜브로 확인해보세요.

☎ 메리놀병원 대표전화 : 465-8801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가톨릭센터 배움터 대실**

- ▶ 110석, 60석, 30석 등 4개의 교실 운영
- ▶ 교육·세미나·워크샵 가능 / 음향·영상시설 구비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 ▶ 8층 21평, 6층 21평, 14평 ▶ 가톨릭 신자 및 단체 환영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길맥흉부외과	김용기내과의원	독일보청기	(주)금정소방	정대수맑은신경과
〈하지정맥류 중점클리닉〉 모카, 고주파, 레이저, 보험수술 원장. 박 동 욱 (안드레아) <b>754-9975~6</b>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센텀임페리얼타워	[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 <b>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b> 원장. 김 용 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b>상담 및 예약 245-7100</b>	동래교차로(수안동)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당, 교육특별할인, 즉석 A/S 방 (아브라함) 송 (아가다) <b>555-5777</b> 동래구 총령대로 229. 수인역 7번출구 앞 2층	소방시설점검관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조진호(보나벤투라) <b>514-0119</b> <b>010-8516-0119</b>	(미카엘) 신경과전문의 의학박사 전)부산대학병원장 치 매·뇌졸 중 신경과 과장 두 통·어지럼증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고희갑·물 면 증 남천역 3번출구 <b>612-6100</b>
<b>내일N성형외과</b> 최수종 (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코,윤곽,가슴,지방성형,보톡스,필러,레이저 상담 및 예약 <b>231-8088</b>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7(바른병원 2층) / 서구청 옆	동래 광안 <b>참사랑요양병원</b>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교보) 광안 : 751-1515 김병희(아베스)	<b>해 맑 음 농 장</b> <b>해남광뽕절임배추</b> 1박스 20kg 35,000원(택배 포함) 농협 김은채 302-14793-19871 대표. 김해갑 (베드로) <b>010-7929-8779</b>	<b>스톡화상영어</b> 1:1 원어민, 비대면 화상 영어수업 파닉스, 스토리북, 프리토킹, 편리팅 직접인 비즈니스코스, 성인회화 무료 체험 수업 제공 및 친절 상담 변지영 <b>010-4435-0441</b> (리브가) www.stormenglish.kr	결혼예복, 혼수예단, 계량복 노영옥(베르타) <b>632-2656</b> <b>010-3551-2656</b>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11~212호 (4호선 3리안)